

전북대 치과대 서봉직 교수, 구강내과 교수회장 연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치과병원 구강내과 서봉직 교수가 대구구강내과교수협의회 회장에 연임했다고 5일 밝혔다.

서봉직 교수는 지난 달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대한구강내과교수협의회에서 회장직 연임을 확정지으며 초대 회장에 이어 제2대 회장으로 재선임을 받아 내년 3월 31일까지 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구강내과교수협의회는 구강내과의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봉직 회장은 “민족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고 심도 있는 토론 문화를 정착해 특히, 팬데믹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뿌리내리고, 학부생 및 전문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눈부신 기술발전을 도입한 새로운 구강내과 진료방식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봉직 교수는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치과진료처장, 전북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 대한축구단아학회장에 학회장, 거점국립대치과병원협의회장, 대한인연봉증/구강내과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윤상 기자

## 이심점심(以心點心) 중식 지원

전북농협·장수농협, 고향주부모임·행복나눔봉사단 취약계층 직접 방문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장수고향  
주부모임 행복나눔  
봉사단(회장 이향숙)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장길환)와 함께 5일  
장수농협에서 이심  
점심(以心點心) 중  
식지원 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는 장수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사)농촌사회법률민족봉사부가 지원했다. 이심점심(以心點心) 중식지원 행사는 농번기에 식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농가에게 점심이나 밥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물김치, 걸절이김치, 장조림, 멸치자반 등 4가지 밀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농촌취약계층 50여 가구를 직접 방

위해 중식지원과 밥전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에 활력이 넘치도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하림, 식목일 자연환경 조성 나무심기 행사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박길연)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5일 하림 임직원 60여 명이 식목일을 맞아 익산공장 위치한 망성로 도로 주변에 측백나무 600여 그루를 심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익산공장을 중심으로 녹색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하림은 ESG 경영 실천에 있어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설비 신재생 에너지 활용 설비, 재활용 가능 아이스팩 도입, 제품 포장재 출소 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림은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 앞서 주변 하천을 찾아 벼려진 플라스틱과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자연 환경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나가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효자4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수제 마스크 전달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최숙자)는 5일 효자4동 주민센터(동장 김철웅)에 저소득층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용 천 마스크 60개를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여름철 삼계탕 봉사, 칠밥 봉사, 밀반찬 나눔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회원들이 정성을 담아 친환경 천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탁했다.

최숙자 회장은 “효자4동 새마을부녀회가 정성스럽게 손수 제작한 마스크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새마을부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가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정진숙 삼천2동장은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 나눔 냉장고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삶이 더욱 고단한 취약계층에게는 최소

한의 먹거리 안전망 역할과 소유와 공유의 정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적 사회복지 서비스가 매울 수 없는 틈새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14대 황인두 회장 취임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협의회 제 14 대 회장으로 지난달 30일 황인두(60)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황인두 회장은 “현신과 열정으로 바르게살기를 힘차게 이끌어 온 박오상 전 회장과 회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봉사와 협신을 아끼지 않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인두 회장은 “회장 취임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회원들이 이루어 놓은 역사와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로 대면 봉사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빙여해 봉사활동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비대면 봉사활동 ITEM 빌글에 힘쓰는 등 2000여 명의 회원들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밀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종교협의회, 펜데믹 이후 종교인 역할 간담회

한국종교협의회가 최근 종단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의 종교운동과 종교인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미안파 국민의 고귀한 불복종 운동을 지지하고 군부의 폭력을 중지할 것도 촉구했다.

이번 종단 대표 간담회에는 기독교, 대종교, 대한불교관음종, 대한천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유교, 전도교, 한국불교대고종, 한국이슬람교 등 20여명의 한국 종교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 이후의 한국사회를 위해 연대할 초종교 활동에 대해서 논의했다. 더불어 당면한 한반도 환경위기의 대책이 통일 이후 종교인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정복규 기자

## 전주매일

www.jmci.com  
등록번호 전북 100616  
2009년 11월 23일 농·축·의·약  
(주)500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25-4113  
신촌지사 010-2333-4791  
사천지사 070-274-9417  
호지지사 010-885-9935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문화콘텐츠



TV방송채널

kt  
tv  
ch.224

B  
tv  
ch.285

tv  
ch.253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전북

YouTube

akkoTV

NAVER

jjctv전북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